

# 미달 고민했던 행복주택 ‘인기 폭발’

### 광주 올 첫 공급 지구 평균 4.8대 1...청년주택 최고 15대 1

### 입주자격 완화 ‘효과’...효천·목포·여수 재공고도 모집 초과

서울 강남이 아닌, 광주의 임대 단지에 서 최고 15대 1이 넘는 청약 경쟁이 벌어 졌다. 극심한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했다가 ‘미달’ 사태를 빚었던 지역에서도 높은 경 쟁률을 기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주거 약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절대 적으로 부족한 광주·전남 지역 현실에서 과중한 주택가격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들을 감안, 지방 현장에 맞 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한 게 수요자들이 몰 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신혼부부 몰려=24일 한국도 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 르면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일대 청년·대 학생,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 300가 구 청약에 마감한 결과, 모두 1446명이 신청하면서 4.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신혼부부·고

령자·주거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 택이다.

특히 19~39세 이하 청년들에게 공급하 는 행복주택(26㎡)의 경우 50가구 모집에 무려 777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15.5대 1에 달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36㎡)도 78가구 모집에 162명이 몰리며 인기 를 끌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26㎡ 아파트 임대료가 12만원 대로 주변 시세(25만~ 30만)보다 훨씬 저렴한 점, 인근에 대학과 하남공단 등으로 청년·대학생 수요가 많 은 점, 신혼부부를 위한 36㎡ 규모 아파트 도 18만원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는 점 등이 흥행 배경으로 꼽힌다.

입계는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등의 현 실을 반영, 입주 자격을 완화한 게 실수요 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방 수요자 목소리 반영해야=청

년,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의 경우 지난해 광주 효천지구와 목포·여수 등에서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주거 여건이 다른 점을 간과한 채 자격을 까다롭게 하거나 일률 적 크기로 공급했다가 미달되는 등 ‘미만’ 받은 바 있다.

LH는 이같은 점을 감안, 전 정부에서 엄격하게 규제했던 입주자격을 완화한 뒤 광주·전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반영 해 청약 경쟁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 대학생 소득 여부와 청약지역 등을 따졌 던 규정을 없앴고 혼인 기간 5년 이내로만 입주자 가능했던 신혼부부 행복주택도 7년 까지로 완화했다.

입주자격 완화 규정이 반영되면서 지난 해 입주자를 모집했다가 대규모 미달 사 태를 빚었던 광주 효천 2지구(902가구), 목포 용해 2지구(450가구), 여수 수정지구 (200가구) 행복주택도 재공고를 통해 모 두 모집 가구보다 많은 입주자가 몰렸다. 효천 2지구의 경우 192가구를 모집했다

가 136가구가 ‘미달’됐던 신혼부부용 행복 주택은 이번 재공고에서 174명이 몰렸고 98가구가 미달됐던 청년·사회초년생용 행복주택도 334명이 청약 서류를 접수하 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목포 용해2지구도 45가구가 미달됐던 대학생·청년용 행복주택에 대한 재공고 를 통해 109명이 청약 서류를 접수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LH 광주전남본부는 23일부터 27일까 지 진행중인 광주 진월 행복주택(460가구) 에서도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심 기 대하고 있다. 여기에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의 경우 대학·사회초년생도 입주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입주자격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만큼 받아들여지게되면 더 많은 입 주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전남 주택업계 사이에서는 입주 자격 완화 외에 지역·계층 특성에 맞도록 공급하는 주택 규모를 조정하는 등 지방 수요자들을 고려한 주택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64.14 (-9.97)
- ↓ 금리 (국고채 3년) 2.23% (-0.01)
- ↓ 코스닥 873.61 (-5.41)
- ↑ 환율 (USD) 1076.80원 (+7.80)

## 효성, 中 플라스틱 박람회 첨단제품 소개

### ‘차이나 플라스’ 40개국 참가...파이프 소재 토피렌 선보여

효성이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고무 박람회를 통해 첨단 제품을 소개하며 기 술력을 선보인다.

효성은 24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아시아 최대의 플라스틱·고무 박람회 인 ‘차이나 플라스 2018’에 참가해 첨단 제품들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차이나플라스에는 ‘스마트제조, 혁신소재, 그린솔루션’을 주제로 40여개 국, 4000여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장비 및 재료, 기술 등을 선 보일 예정이다.

효성은 27일까지 열리는 박람회에서 폴리프로필렌(PP) 브랜드 ‘토피렌’을 선 보인다.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의 PP인 ‘토피 렌 R200P’는 냉·온수 공급용 파이프의 재료로 쓰이며 뛰어난 경제성과 친환경 성, 화학적 안정성을 보유한 제품이라는 게 효성측 설명이다.

효성은 또 박람회 기간 중 글로벌 고 객들을 대상으로 한 효성 제품에 대한 기술 세미나도 연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차이나플라스는 효성의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알릴 수 있는 무대”라며 “다양한 응용산업에서 고객의 요구를 경청,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세무서·국세청

### 종교인 과세 설명회

광주세무서(서장 전태호)는 지난 10일 과 19일, 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 세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 지방국세청과 합동으로 제도 홍보와 설명 회를 개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관내 주요 종교단체 (개신교 동광주교회·전남노회)의 총회행 사에 참석해 과세제도 설명과 안내책자 배 포 및 개별면담을 진행했다.

전태호 광주세무서장은 새롭게 시행되 는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매일 진행되는 원천징수 신고업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최재호기자 lion@



## 광주 소매업·전남 농업 종사자 ‘최다’

### 통계청 취업자 일자리 분류...청년층, 음식·주점업 가장 많아

광주에서는 소매업 종사자가, 전남에서는 농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지역별 취업자 일자리를 산업 중분류로 구분했을 때 소매업(자동차 제 외) 종사자가 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서비스업 종사자가 6만5000명으 로 뒤를 이었다.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초·중·고·대학과 일반 학원 종사자 등을 포함한 수치다. 또 음식점 및 주점업(5만 5000명), 보건업(4만7000명), 전문직별 종 사자(4만1000명) 등의 순이었다.

통계 작성 기준이 된 10차 한국 표준산 업 분류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에는 한식당, 중식당, 일식당, 제과점, 피자가 게, 치킨점, 분식집, 생맥주 전문점,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등이 포함된다.

## 기아차광주공장 품질 다짐대회

전남에서는 농업 종사자가 19만1000명 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8만9000명), 공 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종사자(7 만명), 음식점 주점업(6만5000명), 교육 서 비스업(5만2000명) 등이었다.

한편, 통계청의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 별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전국 청년층 취업자의 일자리를 산업 중 분류로 구분했을 때 음식점 및 주점업이 51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30~49 세가 가장 많이 취업한 산업은 교육서비스 업(107만1000명)이었고 50세 이상은 농업 (119만4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은 24일 연구동 대강 당에서 정찬민 광주공장장, 나태을 기아 차 노조 광주지회장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관리자 품질실천 다짐대회’ 를 개최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광주공장 생산 차 량의 품질수준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객 만족도를 높여 판매 증대 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는 또 현장관리자 대표들이 참석 ‘안전품질확보’ 선언문을 낭독하며 품질 향상을 결의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에어서울, 日 항공권 3000매 쏜다

### 내달 4일까지 시즈오카·다카마쓰·나가사키 선착순 공짜 판매

아시아항공 계열 저가항공사(LCC) 에어서울이 일본행 무료 항공권 3000매 를 제공한다. 일본 소도시 노선을 중심 으로 지난 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공짜 항공권’ 프로모션에 따른 것으로, 이번 에는 시즈오카, 다카마쓰, 나가사키 지 역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시즈오카 노선은 24일 오후 2 시부터 ‘공짜 항공권’ 1000매를 선착순 판매한다.

이틀 뒤인 26일부터는 인천~다카마 쓰(사진) 항공권 1000매를, 오는 30일 부터는 나가사키 항공권 1000매를 같은 방식으로 공짜 판매한다.

공짜 항공권은 에어서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웹을 통해 오는 5월 4일까지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다.

여행 기간은 3개 도시 모두 7월 1일부 터 10월27일까지로, 항공운임(0원)을 제 외한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왕복 총액 약 4만3000원)은 소비자가 부담해 야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잠든 동전 지폐로 교환하세요”

### 금융권, 내달 범국민 운동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만 하고 쓰지 않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는 범국민 동 전 교환운동이 실시된다.

한국은행은 전국 은행연합회, 새마을 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우정 사업본부와 공동으로 다음 달 한 달간 범국민 동전 교환운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이 운동은 가정, 사무실에 잠들어 있

는 동전을 전국의 은행, 새마을금고, 신 협, 저축은행, 우체국, 농·축협 영업점 에서 지폐로 교환하거나 입금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한은은 동전 제조 비용을 절감하기 위 해 2008년부터 매년 범국민 동전 교환운 동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으로 2008년 부터 지난해까지 총 28억(3808억원), 연평균 2억8000만개 동전을 회수했다. 이를 새로 제조할 때 드는 비용인 284억 원을 매년 아낀 셈이다. /연합뉴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 방수 부분설비(누수)

###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